

##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여성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주나미<sup>1</sup> · 윤지영<sup>2</sup> · 김옥선<sup>1\*</sup> · 박상현<sup>1</sup> · 고영주<sup>1</sup> · 김지연<sup>1</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sup>2</sup>국립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Female-Consumers for Nutrition Labeling System

Nami Joo<sup>1</sup>, Jiyoung Yoon<sup>2</sup>, Oksun Kim<sup>1\*</sup>, Sanghyun Park<sup>1</sup>, Youngjoo Ko<sup>1</sup>, Jiyou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had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usage status of customer,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s, and the most important items of the nutrition labeling at purchasing the food etc. on the current nutrition labeling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he customer-centric nutrition labeling system. Survey was carried out by questionnaire method that is targeted on adult female above 20 years old in Seoul and Gyeongnam area from May to June, 2004. For the experience of checking the nutrition label of the processed domestic and imported processed food, 82% and 75.4% of the respondents were replied 'have checked' respectively. For the positive effects due to enforcement of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the respondents agreed highly with 'easy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and 'improve the products quality'. For the problems of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the respondents agreed highly with 'different criteria for each product' and 'incendiary purchasing due to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and gave the higher scale for the positive effects than the problems relatively. For the necessity of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96.2% of the respondents were replied 'necessary', and it was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age and marital status( $p < .01$ ). For the price rising due to enforcement of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55.2% of respondents agreed, and it was indicated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on age and monthly income( $p < .001$ ). For the most important nutrition labeling items at purchasing the food, the respondents were replied 'total calorie' on most of the food, and in addition, they checked carefully the lipid, cholesterol, protein, Ca, and Fe.

**Key Words** : nutrition label, nutrition labeling system, nutrition information

#### 1. 서론

최근 산업 발전에 따른 국민 경제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구조는 크게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개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품의 수입개방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수준은 급속히 변화 되었다(Im & Kim 1996; Son & Chang 1997). 그리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도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가정의 식생활 패턴이 과거 개개 가정단위의 조리형태에서 가공 편의식품의 구입과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갈 전망이다(Chang 1997; Park 등 1995). 또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공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획득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영양소의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며 특정 영양소를 첨가·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식품이라고 해도 원재료나 가공과정에 따라 영양소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 영양소

의 과부족과 만성퇴행성질환(성인병)의 발현에 관한 상관관계(Dawson-Hughes 등 1990; Hegstedt 1965; Prince 1991), 특수영양 성분의 생리적 기능 등에 관한 최신정보(Jang & Kim 1990)는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재빨리 전파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는 포장가공식품의 구입 시 영양 표시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제품이 가진 영양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식품 업체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Kim 1998; Kim & Lee 2002).

영양표시제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식품 영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영양성분의 강조나 Health claim의 규정을 전문가 집단의 동의 하에 설정,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소비자 영양교육의 도구가 되고 영양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며 새로 개발된 상품과 기존제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제품의 영양적 가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Chang 1998; Codex 1999).

우리나라 영양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 10조에 의하여 1996

\* Corresponding author : Ok-Sun Kim, Department of Foo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2-Ka, Yonsan-Ku, Seoul 140-742, Korea  
Tel : 82-2-710-9471 Fax : 82-2-710-9479 E-mail : okboog@hanmail.net

년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1999). 실제적으로 식품이 가진 모든 영양소의 함량 표시는 거의 불가능 하지만 영양성분 표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생채소, 과일, 생선을 제외한 모든 포장 식품에 영양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고 열량, 지방에서 오는 열량비,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A 및 비타민 C, 칼슘, 철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rane 1990). 그러나 우리나라 영양표시제도는 이행율이 낮고,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노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구매의 주체인 20대 이상 여성의 영양표시 이해와 이용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및 긍정적인 효과를 조사하여 영양정보원으로서 역할과 현재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밝혀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의 개선과 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식품 구매 주체인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회수율 70%)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자료 34부를 제외한 31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질문내용은 선행연구(Codex 1999; Kim 1998)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국내 및 수입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유무, 영양표시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 및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 수용 여부, 가공식품 구입 시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 영양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긍정적인 효과 등 크게 7가지 영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통계처리 및 분석

조사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문항에 따라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사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차이는  $\chi^2$ -test, t-test, ANOVA-test를 수행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경우, 어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Duncan's multiple range를 통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29세 40.7%, 30~39세 29.3%로 20~30대가 전체 응답자의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59.3%가 기혼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자의 83%가 핵가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2%, 학생이 32.5%, 전문직이 16.4%였으며,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20.8%로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소비자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반면 여성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청(2005)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9.7%로 2000년 65.4%보다 14.3% 증가하였고, 4년제 대학의 진학률(57.5%)은 2000년(43.5%)에 비해 14.0% 증가하였다. 또한 월 수입은 응답자의 77%가 150~300만원 미만으로 2004년 4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이 290만원인 것(통계청 2004)과 비교하면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중산층으로 사료된다.

Guthrie 등(1995)의 연구에서 영양표시 사용자의 특성을 요약한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여성,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영양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영양표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nder & Derby(1992)의 연구에서도 여자, 고학력자들이 영양표시를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보고에서는 영양정보를 찾는 주 계층이 30세 이하 미혼여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Age	20~29	129( 40.7)
	30~39	93( 29.3)
	40~49	41( 12.9)
	Over 50	54( 17.0)
Marital status	Married	188( 59.3)
	Not married	129( 40.7)
Family size	Small family	263( 83.0)
	Large family	31( 9.8)
	Support oneself	23( 7.3)
Job	Students & etc.	103( 32.5)
	Professional & managerial	52( 16.4)
	Housekeeper	133( 42.0)
	Manufacturing	15( 4.7)
	Sales & Service	14( 4.4)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66( 20.8)
	Graduated college	25( 7.9)
	Graduated university	147( 46.4)
	Graduate school	17( 5.4)
	Etc.	62( 19.6)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150	109( 34.4)
	150~200	38( 12.0)
	200~250	56( 17.7)
	250~300	41( 12.9)
	Over 300	73( 23.0)
	Total	317(100.0)

라고 하였다(Chang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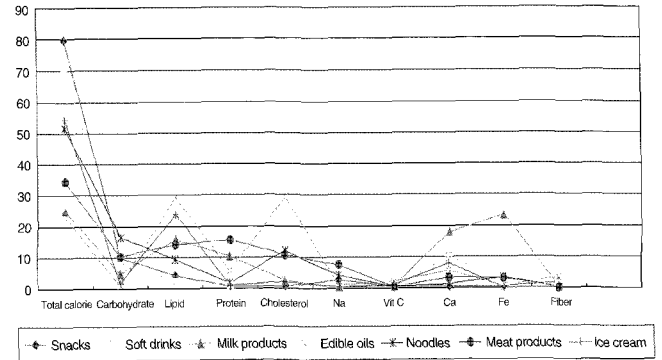
2. 국내 및 수입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유무

가공식품 구입 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유무에 대한 응답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국내 및 수입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경험있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82%와 75.4%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공식품의 선택 시 영양표시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들과 가정주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영양표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와 수입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유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5),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영양표시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국내 및 수입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결과 55.6%(노 1998), 58.8%(Park 등 1995), 59.8%(Im & Kim 1996), 77%(Chang 1997)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영양표시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Im & Kim(1996)에서 영양표시를 본 비율이 국산가공식품 89.8%, 수입가공식품 43%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 수입 가공식품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입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비율이 상승하였음은 물론이고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수입가공식품의 구매층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공식품 구입 시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

가공식품 구입 시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에 대하여 과자 및 시리얼, 음료, 우유 및 유가공품, 식용 유지류, 면류, 육가공품, 아이스크림 항목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총열량, 총탄수화물, 총지방, 총단백질, 총콜레스테롤, 총나트륨, Vit C, Ca, Fe, 식이섬유 등 총 10가지 영양소별 비율로 <Figure 1>



<Figure 1> Most important nutrition labeling items at purchasing the food

<Table 2> Experience of checking the nutrition label of the processed food

Factors	Domestic processed food			Imported processed food			N(%)
	Have checked	Have not checked	$\chi^2$	Have checked	Have not checked	$\chi^2$	
Age	20~29	103( 79.8)	26(20.2)	4.58	89(69.0)	40(31.0)	7.48
	30~39	81( 87.1)	12(12.9)		79(84.9)	14(15.1)	
	40~49	30( 73.2)	11(26.8)		31(75.6)	10(24.4)	
	Over 50	46( 85.2)	8(14.8)		40(74.1)	14(25.9)	
Marital status	Married	159( 84.6)	29(15.4)	2.05	150(79.8)	38(20.2)	4.81*
	Not married	101( 78.3)	28(21.7)		89(69.0)	40(31.0)	
Family size	Small family	219( 83.3)	44(16.7)	2.74	199(75.7)	64(24.3)	3.83
	Large family	25( 80.6)	6(19.4)		26(83.9)	5(16.1)	
	Support oneself	16( 69.6)	7(30.4)		14(60.9)	9(39.1)	
Job	Students & etc.	80( 77.7)	23(23.3)	6.87	69(67.0)	34(33.0)	8.08
	Professional & managerial	40( 76.9)	12(23.1)		41(78.8)	11(21.2)	
	Housekeeper	114( 85.7)	19(14.3)		109(82.0)	24(18.0)	
	Manufacturing	15(100.0)	0( 0.0)		10(66.7)	5(33.3)	
	Sales & Service	11( 78.6)	3(21.4)		10(71.4)	4(28.6)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53( 80.3)	13(19.7)	6.74	48(72.7)	18(27.3)	9.02
	Graduated college	25(100.0)	0( 0.0)		22(88.0)	3(12.0)	
	Graduated university	118( 80.3)	29(19.7)		117(79.6)	30(20.4)	
	Graduate school	15( 88.2)	2(11.8)		13(76.5)	4(23.5)	
	Etc.	49( 79.0)	13(21.0)		39(62.9)	23(37.1)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150	87( 79.8)	22(20.2)	4.36	78(71.6)	31(28.4)	2.80
	150~200	29( 46.3)	9(23.7)		28(73.7)	10(26.3)	
	200~250	46( 82.1)	10(17.9)		41(73.2)	15(26.8)	
	250~300	38( 92.7)	3( 7.3)		33(80.5)	8(19.5)	
	Over 300	60( 82.2)	13(17.8)		59(80.8)	14(19.2)	
Total	260( 82.0)	57(18.0)		239(75.4)	78(24.6)		

\*p<.05

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식품 구입 시 총열량을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자 및 시리얼은 총열량 79.6%, 총탄수화물 9.8%, 총지방 4.1%, 총나트륨 2.8%, 식이섬유 1.6% 순이었고, 음료는 총열량 71.4%, Ca 9.8%, 총탄수화물 9.1%, 총콜레스테롤 2.5%, Fe 2.2% 순으로 주의 깊게 본다고 응답하였다. 우유 및 유가공품은 총열량 24.9%, Fe 23.3%, Ca 17.7%, 총지방 15.8%, 총단백질 10.1% 순이었고, 식용유지류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29.4%, 총지방 29.3%, 총열량 22.7%, 총단백질 5.4% 순이었으며, 면류는 응답자의 51.7%가 총열량을, 16.4%가 총탄수화물을 주의 깊게 본다고 응답하였다. 육가공품은 총열량 34.6%, 총단백질 15.5%, 총지방 14.2%, 총콜레스테롤 10.7%, 총탄수화물 10.4% 순이었으며, 아이스크림은 응답자의 60.9%가 총열량을, 23.7%가 총지방을, 7.9%가 Ca 을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식품에서 총열량을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총지방, 총콜레스테롤, 총단백질, 미량성분으로는 칼슘과 철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g(2000)의 연구에서 영양표시에 우선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영양성분의 순위가 총열량, 단백질, 콜레스테롤, 칼슘, 지방, 비타민, 철분의 순으로 보고된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만성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되는 성분을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국 영양표시에서 중요시하는 포화지방산, 섬유소, 나트륨에 대한 인식(Chang 1998)은 본 연구결과에서는 총열량, 콜레스테롤, 칼슘 등 보다 낮게 나타나 이들 영양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영양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영양표시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

영양표시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3>와 같다. 전체적으로 '타제품과 비교하기 편하다', '제품의 질

이 향상된다' 항목에 3.85와 3.84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다음으로 '영양지식이 향상된다' 순이었다. '건강에 필요한 식품 선택에 용이하다' 항목에 대해서는 3.1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에 용이하다' 항목이 40대 이상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1),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체로 젊은 층 구매자들이 식품선택 시 영양표시를 통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유무에 대해서는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하여 '건강에 필요한 식품 선택에 용이하다' 항목에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p<.001), 이 결과는 응답자의 연령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형태에 따라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에 용이하다' 항목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p<.001), 제조업에 비하여 전문직과 주부가, 그 다음으로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높은 점수를 주었고 '타제품과 비교하기 편하다' 항목에서도 제조업에 비하여 다른 직업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p<.05), 다른 항목은 각 직업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Im & Kim(1996)의 연구에서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에 용이하다' 라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에 용이하다' 항목이 연령별, 결혼유무별, 직업 형태별로 다소 상이한 점수를 가짐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대변화와 영양표시 기능이 변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영양표시제도를 통하여 식품구입 시 타제품과 비교, 식품의 질 향상, 영양지식의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ositive effects of using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Factors		Easy to choose correct products for health	Easy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Improve the products quality	Improve consumer's nutrition knowledges
Age	20~29	3.69 ± 1.01 <sup>b1)</sup>	3.84 ± 0.74	3.81 ± 0.89	3.68 ± 1.00
	30~39	3.65 ± 1.19 <sup>b</sup>	4.00 ± 0.69	3.90 ± 0.78	3.72 ± 0.74
	40~49	1.95 ± 1.12 <sup>a</sup>	3.66 ± 0.88	3.76 ± 0.92	3.46 ± 0.87
	Over 50	1.69 ± 0.93 <sup>a</sup>	3.76 ± 0.95	3.89 ± 0.74	3.83 ± 0.77
F value		68.70 <sup>***</sup>	2.17	0.45	1.43
Marital status	Married	2.78 ± 1.43	3.88 ± 0.79	3.87 ± 0.81	3.66 ± 0.82
	Not married	3.60 ± 1.10	3.81 ± 0.79	3.80 ± 0.87	3.73 ± 0.96
	t value	-5.48 <sup>***</sup>	0.85	0.78	-0.63
Job	Student	3.73 ± 0.94 <sup>c</sup>	3.85 ± 0.73 <sup>b</sup>	3.81 ± 0.91	3.75 ± 1.01
	Professional & managerial	2.65 ± 1.47 <sup>b</sup>	4.00 ± 0.74 <sup>b</sup>	3.94 ± 0.67	3.69 ± 0.81
	Housekeeper	2.89 ± 1.41 <sup>b</sup>	3.88 ± 0.79 <sup>b</sup>	3.89 ± 0.79	3.68 ± 0.79
	Manufacturing	1.60 ± 0.63 <sup>a</sup>	3.20 ± 1.08 <sup>a</sup>	3.47 ± 0.99	3.40 ± 0.83
	Sales & Service	4.00 ± 1.24 <sup>c</sup>	3.71 ± 0.83 <sup>b</sup>	3.71 ± 0.99	3.64 ± 1.01
F value		16.28 <sup>***</sup>	3.23 <sup>*</sup>	1.18	0.53
Total		3.11 ± 1.37	3.85 ± 0.79	3.84 ± 0.84	3.69 ± 0.88

<sup>1)</sup>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01 Descriptors:5-1:

## 5. 영양표시제도 시행의 문제점

영양표시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제품별 기준이 다르다', '허위·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 시킨다'의 항목에서 각각 3.67과 3.5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제품별 영양소 종류가 다르다', '표시가 부정확하다' 순이었으며,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항목에 대해서는 3.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영양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의 영양표시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연령과 '허위·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 시킨다' 항목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1),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대상자는 20대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항목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하여 '허위·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 시킨다' 항목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본 연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던 '허위·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 시킨다' 항목은 Im & Kim(1996)의 연구에서도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된 바 있어, 허위·과대 표시가 근절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전달이 용이하여야 하며, 영양소의 범위 및 제품별 기준의 통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6. 영양표시 제도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 및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 수용 여부

영양표시제도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 및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응답은 <Table 5>와 같다. 영양표시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불편하다'가 52.4%, '불편하지 않다'가 47.6%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p<.001),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핵가족과 확대가족형태가 독신 생활자에 비해 더욱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제조업의 93.3%가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 및 서비스직 응답자의 29.1%와 35.7%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군별로 영양표시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학력에 따른 영양표시 미비로 인한 불편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그 경향이 일정치 않았으며(p<.001), 월수입이 낮을수록 불편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영양표시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55.2%가 찬성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수입이 낮을수록 가격상승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상태와 직업, 교육정도에 대해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5), 미혼자와 제조업 종사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들이 가격상승 수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lt;Table 4&gt; Problems of using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Factors		Difference of items labeled of nutrients for products	Uncertain labeling	Impulse purchasing due to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Different criteria for each product	Difficulties with understanding the nutrition labeling
Age	20~29	3.43 ± 0.77	3.40 ± 0.91	3.74 ± 1.01 <sup>b1)</sup>	3.77 ± 0.91	3.12 ± 1.02 <sup>a</sup>
	30~39	3.54 ± 0.84	3.34 ± 0.79	3.47 ± 0.97 <sup>ab</sup>	3.75 ± 0.94	3.11 ± 0.96 <sup>a</sup>
	40~49	3.29 ± 0.90	3.17 ± 0.77	3.15 ± 0.82 <sup>a</sup>	3.46 ± 0.90	3.44 ± 0.81 <sup>ab</sup>
	Over 50	3.50 ± 0.97	3.35 ± 0.89	3.44 ± 0.95 <sup>ab</sup>	3.46 ± 0.93	3.74 ± 0.83 <sup>b</sup>
	F value	0.88	0.77	4.36 <sup>**</sup>	2.34	6.92 <sup>***</sup>
Marital status	Married	3.47 ± 0.91	3.31 ± 0.85	3.40 ± 0.94	3.61 ± 0.95	3.32 ± 0.96
	Not married	3.43 ± 0.74	3.40 ± 0.85	3.72 ± 1.02	3.77 ± 0.88	3.18 ± 0.99
	t value	0.41	-0.97	-2.85 <sup>**</sup>	-1.53	1.27
Job	Students & etc.	3.46 ± 0.76	3.44 ± 0.88	3.75 ± 1.03	3.80 ± 0.92	3.24 ± 0.96
	Professional & managerial	3.44 ± 0.85	3.31 ± 0.81	3.50 ± 1.06	3.63 ± 1.01	3.19 ± 0.91
	Housekeeper	3.51 ± 0.87	3.28 ± 0.84	3.38 ± 0.91	3.62 ± 0.91	3.29 ± 0.97
	Manufacturing	3.20 ± 1.01	3.40 ± 0.74	3.33 ± 0.73	3.33 ± 0.98	3.80 ± 0.78
	Sales & Service	3.29 ± 1.01	3.43 ± 1.01	3.71 ± 1.01	3.79 ± 0.80	2.86 ± 1.17
	F value	0.63	0.57	2.33	1.17	1.87
Total	3.46 ± 0.84	3.35 ± 0.85	3.53 ± 0.98	3.67 ± 0.92	3.26 ± 0.97	

1)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t p&lt;.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lt;.01, \*\*\*p&lt;.001 Descriptors:5:-1:

<Table 5> The opinion about the necessity of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the inconvenience due to the insufficient labeling, and the price rising

Division	Inconvenience due to the insufficient labeling			Price rising		N(%)	
	Inconvenience	No inconvenience	$\chi^2$	Agree	Disagree		
Age	20~29	40(31.0)	89(69.0)	72.22***	59(45.7)	70(54.3)	23.45***
	30~39	43(46.2)	50(53.0)		44(47.3)	49(52.7)	
	40~49	34(82.9)	7(17.1)		32(78.0)	9(22.0)	
	Over 50	49(90.7)	5( 9.3)		40(74.1)	14(25.9)	
Marital status	Married	121(64.4)	67(35.6)	26.65***	115(61.2)	73(38.8)	6.65*
	Not married	45(34.9)	84(65.1)		60(46.5)	69(53.5)	
Family size	Small family	143(54.4)	120(45.6)	6.87*	145(55.1)	118(44.9)	0.19
	Large family	17(54.8)	14(45.2)		18(58.1)	13(41.9)	
	Support oneself	6(26.1)	17(73.9)		12(52.2)	11(47.8)	
Job	Students&etc.	30(29.1)	73(70.9)	44.54***	46(44.7)	57(55.3)	10.95*
	Professional&managerial	37(71.2)	15(28.8)		31(59.6)	21(40.4)	
	Housekeeper	80(60.2)	53(39.8)		80(60.2)	53(39.8)	
	Manufacturing	14(93.3)	1( 6.7)		12(80.0)	3(20.0)	
	Sales&Service	5(35.7)	9(64.3)		6(42.9)	8(57.1)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25(37.9)	41(62.1)	24.72***	25(37.9)	41(62.1)	13.33*
	Graduated college	16(64.0)	9(36.0)		16(64.0)	9(36.0)	
	Graduated university	96(65.3)	51(34.7)		92(62.6)	55(37.4)	
	Graduate school	7(41.2)	10(58.8)		11(64.7)	6(35.3)	
	Etc.	22(35.5)	40(64.5)		31(50.0)	31(50.0)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150	85(78.0)	24(22.0)	48.59***	79(72.5)	30(27.5)	24.05***
	150~200	20(52.6)	18(47.4)		22(57.9)	16(42.1)	
	200~250	18(32.1)	38(67.9)		27(48.2)	29(51.8)	
	250~300	13(31.7)	28(68.3)		19(46.3)	22(53.7)	
	Over 300	30(41.1)	43(58.9)		28(38.4)	45(61.6)	
Total		166(52.4)	151(47.6)		175(55.2)	142(44.8)	

\*p<.05, \*\*\*p<.001

#### IV. 요약 및 결론

소비자 중심적인 영양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식품구매 시 선택과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국내 및 수입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유무, 영양표시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 및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 수용 여부, 가공식품 구입 시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긍정적인 효과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 40.7%, 30~39세 29.3%로 주로 젊은 층이 대다수였고, 59.3%가 기혼으로 조사되었으며, 83%가 핵가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2%, 학생이 32.5%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46.4%로 조사되었다.

2. 가공식품 구입 시 국내 및 수입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본 경험에 대해 82%와 75.4%의 응답자들이 '경험있음'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혼자들과 가정주부, 제조업 종사자, 소득이 많은 응답자가 영양표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공식품 구입 시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은 총열량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식품군별로 과자 및 시리얼은 총열량 79.6%, 총탄수화물 9.8% 순이었으며, 음료는 총열량 71.4%, Ca 9.8%, 우

유 및 유가공품은 총열량 24.9%, Fe 23.3%, Ca 17.7%, 식용유 지류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29.4%, 총지방 29.3%, 총열량 22.7%, 면류는 응답자의 51.7%가 총열량을, 16.4%가 총탄수화물을 주의 깊게 본다고 응답하였다. 육가공품은 총열량 34.6%, 총단백질 15.5%, 총지방 14.2% 순이었으며, 아이스크림은 응답자의 60.9%가 총열량을, 23.7%가 총지방을, 7.9%가 Ca을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영양표시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전체적으로 '타제품과 비교하기 편하다', '제품의 질이 향상된다' 항목에 3.85와 3.84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에 용이하다' 항목에서 연령별로는 20~30대가, 직업형태에 따라서는 전문직과 주부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5.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품별 기준이 다르다', '허위·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시킨다'의 항목에서 각각 3.67과 3.53점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시킨다'와 연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항목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5. 영양표시 미비로 인한 불편유무에 대해 '불편하다'가 52.4%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고 기혼일수록 불편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영양표시 시행에 따

른 가격상승에 대해서 55.2%가 찬성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입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소비자가 실제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 영양표시의 기본 정보, 정확하게 읽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할 때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쉽고 간결한 영양표시와 보다 구체화 된 정보제공, 제품별 기준 통일, 허위·과대표시의 단속 등 향후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제도에 정착에 대한 논의와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김화영. 1998. 영양표시 기준치로서의 영양권장량. 한국영양학회 98년워크샵, 13.
- 노영화. 1998. 식품영양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건복지부. 1999.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99-15호.
- 손혜숙, 장유경. 1997. 식품의 영양표시 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 식품과학과 산업, 30(2): 69-76
- 장순옥. 1998. 영양표시의 현황과 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영양학회 98년워크샵, 29.
- 통계청(www.nso.go.kr). 2004년 4분기 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 통계청(www.nso.go.kr).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Bender MM, Derby BM. 1992. Prevalence of reading nutrition and ingredient information on food labels among adult americans: 1982-1998. J nutr Educ, 24: 292-297
- Chang SO. 1997. A study on the current nutrition labeling practices for the processed foods retailed in the supermarket in Korea. Korean J Nutr, 30(1): 100-108
- Chang SO. 2000. A study on the perception, use, and demand of housewife-consumers for nutrition label. Korean J Nutr, 33(7): 763-773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95 Codex general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ing. CAC/GL 2.
- Crane NT, Behlen PM, Yetley EA, Vanderveen JE. 1990. Nutrition labeling of foods, A global perspective. nutr. Today 25: 28-35
- Dawson-Hughes B, Pallal GE, Krall EA, Sadowski L, Sahyoun N, Tannenbaum S. 1990. A controlled trial of the effect of calcium supplementation on bone density in postmenopausal women. N Engl J Med, 323(13): 878-883
- Gurthrie J, Fox JJ, Cleveland LE, Welsh S. 1995. Who uses nutrition labeling and what effects dose label use have on diet quality? J nutr Educ, 27: 163-172
- Hegstedt DM, MacGandy RB, Myers ML, Stare FT. 1965. Quantitative effects of dietary fat on serum cholesterol in man. Am J Clin Nutr, 17: 281-295
- Im HS, Kim HS. 1996.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by female consumers in north area of Kyonggido. Korean J Living Science Association, 5: 173-185
- Jang HS, Kim SM. 1990.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Fish Oil on Serum Lipid in young healthy females. Korean J Nutr, 23: 1-10
- Kim DS, Lee JW. 2002. Use and Recognition of Nutrition Labeling in Processed Food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Korean J Dietetic Association, 8(3): 301-310
- Park HR, Min YH, Jung HR. 1995.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II), comparative perceptions of consumers, producers and government officials.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55-166
- Prince RL, Smith M, Dick IM. 1991. Prevention of postmenopausal osteoporosis:A comparative study of exercise, calcium supplementation, and hormone-replacement therapy. N Engl J Med, 325(17): 1189-1195

(2006년 1월 12일 접수, 2006년 4월 7일 채택)